

거꾸로 가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국기하강식을 기억하십니까?

from. 2016.2.1일자 새전북뉴스

70년대 후반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에 머리를 박박 깎고 목 부분의 깃까지 고리로 채우는 검정색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 선생님들이나 상급생들과 마주치면 군대식 거수 경례를 했다. 방과 후 집에 오는 길에 여섯시가 되면, 근처의 관공서 건물들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왔다. ‘국기하강식’이었다. 길을 걷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어느 방향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며 애국가가 다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애국적인 시절이었다.

다시 애국이 강조되고 있다. 일 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고나서 “영화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국기 배례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느닷없이 정부부처가 총동원되어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섰다. 전국을 돌며 현장 설명회를 열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했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무슨 ‘태극기달기운동 추진단’인가를 만들었다. 1999년에 폐지되었던 민간 건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도 부활시킨다고 했다.

급기야 이번에는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당초 입법예고되었던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에 공직가치관의 주요 덕목으로 함께 들어 있던 ‘민주성’, ‘공익성’ 등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삭제되었다고 한다. 역시 공안검사 출신 총리답다.

국가를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고 전혀 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애국심은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독일 나치정권의 실력자이자 악명 높은 게슈타포의 창설자였던 헤르만 괴링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아직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열변을 토하며 대중을 선동했다. 그 결과 독일은 지난 세기 중반에 전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다.

온 국민이 오후 여섯시 애국가 소리에 맞춰 길거리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그 시절에 대한 대통령 개인의 그리움을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된다. 국민 개개인이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나라,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구나'라는 긍지를 가질 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애국심이다.

2. 유신사무관제도를 아실는지?

from : 2015.6.15. 육군3사관학교 경기남부동문회 카페

5공화국 시절 절정에 달했다. 전두환식 선군정치라 할까? 1979년 12.12 쿠테타를 주도한 전두환 전 합수부장은 실질적인 군 주도권을 잡고 있을 시기였다. 군인들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를 해주었다. 2직급 높은 대우는 박정희 정권때 이미 시행되었고 "유신사무관"이 그때 출발점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대위"를 사무관으로 특채하여 임무를 맡겼다. 참~~~ 희한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 혜택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였다. 육사 37기가 마지막이었고 육사38기들은 제외되어 불만이 많았다. 전두환 정권시절에도 전 계급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확대, 제도화 하였다.

군인들은~~~

대장인 경우: 장관급 예우를

중장인 경우: 차관급 예우를

소장,준장인 경우: 1급(관리관)

대령인 경우 : 2급 (이사관)

중령인 경우 : 3급 (부이사관)

소령인 경우 : 4급 (서기관)

대위인 경우 : 5급 (사무관) 대우를 받았다.

위의 경우를 보면 일반공무원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30년 하여도 6급,5급을 맘도는데 일약 "대위"가 사무관 대우를 받았으니 말이다. 동사무소 동장급이나, 구청 과장들이 5급

사무관이다. 5급 사무관을 달려고 30년을 해야 하였는데 말이다. 유신사무관들이 이제 정년을 맞아 퇴직한다. 더 높게 출세한 유신사무관들이 엄청 많겠지? 현재 우리나라 대장 직위가 1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일개부처인 국방부에 장관급이 무려 11명인 셈이다. 이 이야기가 불과 얼마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가?

유신사무관제도, 군사정부때나 가능했던 옛 이야기다.

3. 공무원 선발 기준에 '애국심' 포함되 '사상검증' 우려

from. 2016. 1.27일자 노컷뉴스

정부가 공무원 선발 기준에 '애국심'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사상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여 공직가치를 실현하도록 공직가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직가치는 애국심과 책임성, 청렴성 등 3가지다. 이는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애국심과 책임성, 청렴성 외에도 민주성과 도덕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9개의 가치가 제시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애국심이 공무원 선발 기준의 핵심 가치로 포함되면서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거나 사상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5급 공채 시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국가 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질문이 나와 사상검증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 9급 세무직 시험에서는 응시생들에게 '애국가 4절 부르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 암기' 등을 요구해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애국심이 공직 선발 기준으로 명문화되기도 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사상검증 논란이 빚어졌는데, 애국심이 공직가치로 명문화되면 애국심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9개의 공직가치 중 국가관과 공직관, 윤리관을 대표하는 3대 공직가치만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4. 공무원 헌장 낭독

from.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68호(2016. 1. 21)

1. 인사혁신처 복무과-2668(2015.12.24.)호 및 복무과-197(2016.1.19.)호와 관련입니다.

2.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마음자세와 올바른 공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2016년 기관별 시무식 행사에서 새롭게 개정된 「공무원 헌장」 낭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3] 서식에 따라 귀 기관의 「공무원 헌장」 낭독 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1.27(수)까지 이메일(mudrugee@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등에 「공무원 헌장」을 팝업으로 게시·안내 하여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 헌장」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헌장.

2.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3. 시도별 공무원 헌장 낭독 실시 결과 작성 서식. 끝